

시선

사설

등심위, 정해진 답을 향한 지난한 레이스

이번 양 캠퍼스 총학생회 재선거 결과 양 캠 모두에서 총학생회장단이 구성됨에 따라 그간 학생 대표의 부재 속에 정체되었던 등록금 관련 논의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지난 두 차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와는 달리 세 번째 모임부터는 총학생회장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논의다운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까스로 회의체 구성이 이뤄진 이 시점에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다. ‘과연 지금의 등심위는 우리학교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 2010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지금 우리학교의 등심위는 애초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는 의심이 든다.

수년 전부터 우리 학교의 등록금 관련 논의는 대내외적 여건의 강력한 영향 아래 일정한 박스 안에 갇혀 맴돌고 있다. 일단 대외적으로 교육부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 인상을 상한선을 제시하며 ‘동결 또는 인하에 협조해 줄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하고 있다. 말이 권고지 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는 곧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요건화 되며 대학 측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학생들에게 고통을 강요한다’는 비판 여론도 대학 측에는 부담이 된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우리학교가 심각한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재정 수익의 60% 이상을 등록금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 교육부의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기도 전인 2009년 이래로 등록금 동결을 치택해오는 과정에서 재정수익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지 못한 결과다. 그 여파는 전 구성원에게 미치고 있다. 교육여건 관련예산 등의 축소로 학생은 교육환경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교직원은 벌써 수년째 제자리인 임금으로 현실적인 고통분담에 당면해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눈치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 재정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서 결국 등심위의 과정은 ‘등록금 동결’이라는 정해진 답을 향해 나아가는 지난한 레이스에 불과해졌다. 그리고 등록금 가고지가 일상화될 정도로 등심위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는 사이에 예산 확정도 따라서 더뎌지고, 결국 대학은 상시 추경상태라는 기형적인 조직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내 구성원 대표가 한 데 모여 의견을 나누는 거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등심위 내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인 재정문제-곧 재정수익다변화와 같은 대학의 장기적 화로에 대해 그 어떤 유료한 방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이나 구성원들이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 인 듯하다.

오늘도 등심위에 참석하기 위해 교직원 대표도 학생 대표도 절마다 본관으로 향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깃들어 있지 않다. ‘등록금 동결(凍結)’로 향하는 등심위를 바라보며, ‘얼어붙고’ 있는 대학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가 자꾸 틈탄다.

2017 THE 아시아 대학평가
국내 4위, 아시아 36위

미디어 여론동향 2017. 3. 20~4. 2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서울캠 진로상담교수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저조한 진로상담 이용률…문제는?/대학주보 온라인, 2017.3.26) 지난 2006년 시행된 진로상담교수제는 학생에게 소속 학과 교수를 배정해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만 최근 3년 간 이용실적은 43%에 불과했다. 지난해 학부생을 상대로 진행된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적극적인 진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56점으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다. 학생들은 ‘배정받은 교수님을 선호하지 않아서’, ‘뻔히 아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아쉬웠다’는 의견을 표했다. 흥보부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취업진로지원처 측은 “앞



이 주의 주제 - 제3 중핵교과 문제점 진단

‘다름’에서 비롯된 문제, 차근차근 해결해야

양윤주 기자

cyanide@knu.ac.kr

문과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이과생, 이과적 소양을 가진 문과생. 심지어는 문과적 혹은 이과적 소양을 가진 예체능생. 21세기 우리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융합’이 핵심이다. 우리학교도 이에 맞춰가고자 지난 해 16학번부터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제 3의 중핵으로 도입했다. 그 취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우리사회의 인재상을 봐도,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적인 과학적 지식과 사고방식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취지를 이루기엔 현재 시행되는 형식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불만을 초래하고 체계적이지 않는 불안을 심어준다. 처음 해보는 시도인 만큼, 초반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며 쉽지 않은 시도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강의가 흑자에 4년 대학생활의 처음 이자 마지막인 과학강의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빅문의 많은 부족함들은 쉽게 ‘시행착오’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같이 시행한 설문조사의 주관식 답변들을 읽고 있자면 기사에 담은 팀 티칭의 문제부터 시작해 학생이 듣고자 하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객관식 시험이 과연 과학적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방식인지에 대한 의문 등과 같은 강의 내부의 문제만 해도 한

페이지를 채운다. 또 한편으로는 한 강의 당 너무 많은 학생 수로 집중이 저하된다거나 대형 강의실(이를테면 청운관 지하B117호)에 대한 불편함, U-Class 시스템의 각종 오류들과 더불어 발생하는 출석문제들과 같은 강의 외부적 문제 또한 두드러진다.

취재 도중 기자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것이다. ‘제 3의 중핵교과로서 등장한 빅문은 왜 제 1, 2의 중핵교과와 달라야 하는가’

물론, 인문·사회적 분야와 자연분야의 교수법이나 교육과정 등이 방법론적으로 달라야만 한다면, 그래서 이를 통해 학문적 가치, 효과를 고양시킬 수 있다면 생각해 볼만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빅문의 민낯은 ‘다름’으로 인해 빛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시행착오’, ‘개선과정 중’이라는 답을 내놓을 뿐이었다.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으로 동질의, 최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강의의 발전에 희생양으로 쓰이는 부분이 분명 일정 부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빅문에 관한 강의만족도가 좋게 나올리 없다. 빅문은 애초에 문과·예체능생의 새로운 길의 맛보기이자 이과생의 전공기초와 교양의 정검다리로서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작이 불안했던 빅문의 발자국에 맷힌 것은 오히려 문과생과 이과생의 고리감, 예체능생의 ‘멘붕’이었다.

앞으로 빅문은 더욱 험난한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학생들의 희생 없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때에 어엿한 세 번째 중핵교과로서 우리학교의 자랑이 될 것이다.

경희랜드를 가꿔나갈
두 정원사의 책무

세시봉

양윤혁 (국제뉴스팀)



우리학교 주변 벚꽃 개화 시기가 4월 6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경희랜드’가 곧 개장한다고 들리는 모양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양 캠퍼스 총학생회도 출범했다. 이들은 경희랜드를 가꿔나갈 두 ‘정원사’다.

이전 총학생회가 통상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제49대는 조금 늦은 시작을 했다. 등록금 협상과 수많은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은 늦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강화 수학중을 중심으로 수업의 질 저하를, 교수들은 연구지원 부족과 함께 각종 수당 축소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산적한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은 여느 때보다 커서, 그들의 어깨는 시작부터 무겁기만 하다.

재원을 운용하고 큰 틀의 정책을 제시하는 대학본부와, 학교의 기반이 되는 크고 작은 시스템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그에 비해 학생들이 손수 내놓은 9,500원에 기반을 둔 총학생회를 비롯한 자치기구의 힘은 거대한 학교라는 기구에 비해 너무나도 미약해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세심한 노력은 분명 힘이 미쳐 학교를 바꾼다.

그들의 생각은 2만 5천 ‘학생’의 생각이 되고, 그들의 요구는 2만 5천 명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그토록 원하는 수강신청 대란을 방지하고 강좌 수를 늘리는 것만 하더라도 학교에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것은 학생회뿐이기 때문이다. 그 정당성으로부터 총학생회의 위상이 존중되고, 책무 또한 막중한 것이다.

다시 한 번 학교 안을 들여다보자. 학교에는 새로 올라가는 SPACE21 건물 공사가 한창이다. 4월 완공을 앞둔 건물들로 일부 학과들과 부서들이 이동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반짝이는 새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도 공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단과대학에선 비게 되는 공간을 따내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학교에선 언어교육원과 같이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에 우선 눈길이 갈 수도 있다. 여기서도 총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할 테다. 강의실 부족으로 열악한 학과들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의 일로부터도 우리학교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에선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대학들이 학기제, 학사제도 운영에 대한 제한을 풀어버렸다. 대학본부 측에선 다양한 시도를 검토할 것이고, 지난 날 우리에 대한 정책을 남으로부터 통보받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 경희랜드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경희랜드는 한 뿌리를 가지면서도 크게 두 날개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분리될 수도, 완전히 합쳐질 수도 없이 온전히 ‘그 자체로’ 길러져야 한다. 한 캠퍼스만의 발전으로 우리학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총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아름다운 양 날개의 균형을 맞춰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번 총학생회가 맡게 될 9개월을 동안 경희랜드는 변할 것이다. 4월의 벚꽃과 같이 만개하게 만들 수도, 12월의 메마른 가지처럼 ‘인동의 계절’을 보내도록 이끌 것인지.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디렉터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